

김영나 작가, 7월8일까지 개인전 'TESTER' 개최

June 12, 2023 | 이세아 기자

Page 1 of 3

김영나 작가 개인전 'TESTER'
7월8일까지 서울 종로구 두산갤러리



김영나 작가 개인전 'TESTER'가 오는 7월8일까지 두산갤러리에서 개최된다.

©두산갤러리 제공



김영나, 테스터, 2023, 유리, 바니시 페인트, 목재 프레임, 390×660×30mm

©두산갤러리 제공

그래픽 디자인과 미술의 전통적 경계를 넘나드는 김영나 작가 개인전 'TESTER'가 오는 7월8일까지 서울 종로구 두산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작가의 아카이브 193점과 신작을 공개한다.

김영나 작가는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 석사 졸업 후 네덜란드 타이포그래피 공방 베르크플라츠 티포흐라피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다가 2012년 귀국해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테이블유니온을 설립했다. 2013년 두산연강예술상을,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오늘의 젊은 작가상'을 받았다. ICA(2021, 필라델피아), A to Z(2020, 베를린),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2020, 서울), FISK Gallery(2019, 포틀랜드), 두산갤러리 뉴욕(2015, 뉴욕), 갤러리팩토리(2011, 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국내외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에선 김 작가의 'SET'(2015)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선별된 포스터, 전시 아이덴티티, 도록, 이미지 등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견고하게 배치된 아카이브와 한쪽 벽을 가득 채운 패턴의 율동적인 선과 색, 맞은편의 오브제와 작은 회화들이 관람객을 맞는다. 아카이브는 투명 선반을 통해 형태, 색, 의미와 사용이 어떻게 반복되고 얽히며, 변화하고 확장했는가 등을 관객이 발견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 배치했다.

16m가 넘는 신작 벽화 'SET v.24'(2023)는 강력하고 미니멀한 디자인 패턴과 화려하고 경쾌한 색감이 돋보인다. 출판물이라는 지면으로부터 시작된 'SET'의 이미지가 '공간'이라는 매번 다른 지지체를 만나며 구축하는 다양한 장면 중 하나다.

윈도우 갤러리 설치 형식의 작품 '54개의 블록 II'(2023)은 모였다가 흩어지는 젠가의 형태다. 디자인을 예술의 범주 안에서 바라봤던 오웬 존스(Owen Jones)의 『장식의 문법(Grammar of Ornament)』(1865)을 재해석해 만들었다. 벽화 맞은편 평면 작업은 작은 회화들과 여러 재질의 오브제로 구성됐다. 일상 속 패턴이나 텍스트, 컬러, 재료, 질감 등에 대한 김영나의 시각을 읽어볼 수 있다. 마트의 과일이나 채소가 담긴 그물의 컬러나 짜임이 어떤 이유와 구별로 해당 내용물과 만나고 있는지, 사물이 지닌 텍스트와 지시문, 기능과 질감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는 그의 시선을 환기한다.



©두산갤러리 제공

이번 전시는 두산갤러리의 초기 작가를 재조명해 그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긴 호흡으로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전시 제목 '테스터'(TESTER)는 어떤 제품이나 실험의 과정이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결론을 내리기 직전의 단계로 진입했을 때 등장하는 개념이다. 두산갤러리 측은 "김영나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실험하고 완결 직전으로 열어두는 실험자(Test+er)이자 아카이브를 통해 과거를 되짚어 보는 전반적인 과정을 '테스터'로 명명함으로써 그의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자 여전한 전진의 상태임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